

<2010년 5월 16일 주일말씀>

기도의 승리, 실천의 승리다

본 문 다니엘 6장

에스더 1-10장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개인과 각 교회와 각 부서들 수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시어 악을 멸하셨듯이, 기도함으로 악이 멸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편지들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났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끝까지 매일 꼭꼭 해야 구원받은 자신을 관리하게 되고, 더 좋은 단계로 변화가 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매일 얻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얻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여 얻을 것과, 행하여 얻을 것과, 주님과 대화하여 얻을 것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실 것이니 전초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 개인과 교회와 각 모임에서 간절히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받았다. 때가 된 것은 응답하여 이루어 주었고, 또 때가 되면 이루어 줄 것이다. 걱정 말아라. 너희가 지금 당장 급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라도 상대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었어도 악을

떨하는 정한 기간이 있다. 그래서 미리 제때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너희가 눈물로, 참으로, 진실로 기도했어도 심판하고 떨하는 것은 때를 정해서 시행하니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모두 맡은 일에 충성하며 담대히 행하여라. 나 예수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정녕코 내 아버지와 시행할 테니 의심 말고 낙심 말아라.

어떤 것은 거듭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다른 기도를 할 때마다 꼭꼭 그에 대한 것을 반복하여 기도해야 한다. 늘 내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때가 되어 너희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다.

어떤 자는 내가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그 일에 해당되는 때에 맞춰 해 주었는데도 모르고,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낙심하기도 한다.

기도는 하되, 내 아버지와 나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해야 이루어지니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면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면 문제도 생기고 죽어야 될 자들도 많다.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상대의 행위까지 공의롭게 보고 시행한다. 내 안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보고 때에 맞게 행한다.

내 아버지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다르다. 이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너희는 악인을 멸해 달라고 죽도록 기도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주기도 하고, 혹은 병으로 치기도 하고, 혹은 물질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혹은 마음으로 겪는 지옥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혹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갇혀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하는 일을 막거나 틀어 안 되게 하고, 혹은 각종 재앙으로 치기도 하고, 혹은 생명으로 치는 등 그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는 것이다.

다만 너희는 공의로운 성경 법에 의거하여 순리적인 기도를 하여라. 너희가 억울함을 받은 만큼, 해를 받은 만큼 기도하여라. 아벨 편은 내

편이니 내 이름으로 해를 받은 만큼 정당히 기도하면 된다. 그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는 자, 곧 공의 법의 근원자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에 해당되게 해 주신다.

너희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여라. 그런 후에 너희를 알지 못하고 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기도할 때는 순리로 먼저 기도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해 달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순리의 기도란 용서의 기도다. 그래도 안 될 때 멸하는 기도를 하여라.

나의 이름은 악을 멸하는 데만 쓰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데 더욱 써야 된다. 내 이름으로 저들을 멸해 달라고 하고, 내 이름으로 저들을 죽여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저들을 살려 달라고 하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너희가 저들을 살려 달라고 기도해도 그 행위대로 다 갚아 준다. 너희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곧 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에게서 아주 마음을 돌려 버리고, 머리가 확 돌아서 갇은 악령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희를 나쁘다고 하는 자들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욕하고 무지로 해를 주니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수호하고 책임을 하기 위해, 사탄과 행악자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마음으로 이기게 되고, 사탄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마음친국이 되어 더 뛰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어 얻지 못할 것까지 얻게 된다. 그러므로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과 행악자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아버지와 성령님과 나를 원망하며 의심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니 소외감까지 갖게 된다.

그러므로 환난 때 기도하여라. 더 지혜로운 기도는 환난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앞날에 크고 작은 환난이 오니 미리 기도해 봐야 된다. 기도하여 너희 마음과 정신을 금같이 만들어 변하지 않게 해 놓고, 마음의 눈 성벽을 미리 쌓아 놓고 예비해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싸우면 이기지 않겠느냐.

너희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서 살기 위해 너희가 할 일이 정말 많고도 많다. 자꾸 신경 쓰고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각나게 된다.

월명동도 그냥 오고 가는 자들은 이제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며, 아무리 봐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한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잔디밭의 잡초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잡초를 뽑으려고 봐야 잡초가 보인다. 월명동에 가면 자기 마음 밭의 잡초를 뽑는다고 생각하며 잔디밭의 잡초를 뽑아야 된다. 성지땅을 온종일 사용만 하고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가면 되겠느냐. 내가 다 보고 기록한다.

월명동에 가면 나를 신경 쓰면서 내 몸이라 생각하고 보아라.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보일 것이다. 너희는 성전에 오기만 하지,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너희 선생에게 물어보아라. 할 일이 없는지, 있는지... 10년 해도 할 일을 못다 할 정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도를 안 해 버릇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일을 안 해 버릇하면 섭리사 안에서 자기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마다 기도의 할 일, 나와 대화할 일, 사명의 일이 있다. 한 사람에서부터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자기 그릇대로 전도의 할 일, 관리의 할 일, 내 안에서 자기 육신과 정신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의 재림을 온전하게 맞는 일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다음 단계의 말씀을 듣자.

어떤 것은 너희가 기도로 고하기만 해도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일은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다짐하고 내게 약속한 대로 행할 일들이다. 너희가 행하지 못할 일은 기도하고, 너희가 행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이다.

기도로만 얻어지기도 하지만, 행해야 얻어진다. 기도해야 승리하고, 기도한 것을 행해야 승리한다. 응답받은 것도 행하지 않으면 평생 얻지 못한다. 행하면 그때부터 얻어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마음먹고, 둘째 행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인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동시에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가난하고 얻는 것이 없다. 마음과 행함으로 살아가야 얻고 풍부하게 살아간다.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가까운 것 같은데도 나와 먼 자이며 나에게 등을 돌린 자다. 행하는 자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기에 10m, 20m 떨어져 있어도 나를 보고 행하기에 나와 가까운 자다.

행할 것을 놓고 제때 행하지 않는 자는 귀한 과일을 사 놓고 제때 먹지 않아서 썩어 버리게 하는 자와 같다. 행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 행할 조건이 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 예수가 얼마나 행하는지 아느냐. 나의 행함으로 지구 세상 수십억의 생명들을 얻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 자신들이 행할 일만 남아 있다. 너희가 행치 않으면 내가 수고하여 행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

요즘 기도의 불이 붙은 자는 더욱 더 불이 타고 있지만, 아직 기도할 때 걸들기만 하는 자들이 많다. 깊이 기도하여라. 차에 시동만 걸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겠느냐. 기도하려고 마음 시동만 걸어 놓지 말고, 입을 벌리고 자기 사연을 말해야 된다.

대화는 할수록 깊어지듯 기도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다. 깊어져야 자기 기도에 감동이 되고, 듣는 자도 감동이 된다. 온전한 기도만이 나의 마음에 전해져 오고, 그 기도 소리가 내게 들려오고, 내 아버지와

성령님에게도 들려온다고 생각하고 하여라.

기도하고 실천해야 내 눈에 띄고 보인다. 요즘에 기도하는 자들은 열심히 한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하여라. 감동되었을 때, 그때가 기회니 실천하여라. 실천하면서,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더 좋게 하기 위해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실천하여라. 기도의 승리와 실천의 승리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기도해야 사탄을 떨하고, 악한 자들을 떨하고, 사탄과 악한 자들의 간교함을 떨하고,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마음 문을 열어 주지 않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승낙하지 않게 된다.

기도한 것을 행해야 승리한다. 기도한 것을 행해야 사탄을 이기게 된다.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여 결국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진 것이다. 기도하고 행해야 네 주권을 떠나게 된다. 기도하고 행해야 사탄과 행악자들을 이긴다. 기도하고 행해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보고 악하다 하는 자들을 사탄과 함께 떨하여 승리하게 된다.

행해야 기도한 것을 얻게 된다. 행해야 환경도 변화되고, 네 육신의 행위도 변화되고, 마음과 영도 변화되어 마치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시대에 해당되는 집을 짓게 되듯이 한다. 월명동도 ‘구상과 행함’이다. 항상 ‘나의 구상과 너희의 행함’이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들과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자들은 행하지 못하고, 혹여 행한다 하더라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다.

행할 때도 나와 의논, 나와 대화! 기도할 때도 나와 의논, 나와 대화다! 너희끼리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에 따라 답이 나가고 이야기를 하게 되듯이, 나 역시도 너희가 묻는 것에 따라 대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나의 대답이 전달된다.

평소 너희가 노력해서 알 일은 너희가 노력하여 알도록 하고, 내게 물어서 알 것은 수준 높게 깊고도 깊게 모든 자들을 위해 물어보고, 내게 꼭 해당되는 것을 물으며 대화해야 된다. 대화 수준이 되어야 깊고도 높

은 것을 두고 나와 오래 대화하게 된다. 그렇다고 자기 수준을 넘어 물으면 내가 답을 줘도 모른다. 내가 그동안 많은 계시자들에게 답을 주었으니,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깨닫도록 하여라.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내게 묻고 나와 대화하면서 행하여 너희 신앙이, 너희 영과 육이, 너희 마음과 혼이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올해는 ‘생명 구원의 해’ 다. 자기 생명을 온전히 구원하여 나를 온전히 맞기까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기르고 키운 자들을 찾아 구원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요, 둘째는 세상에서 내가 키운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직도 선교가 약한 교회들이 많다. 교역자부터 열심히 지휘하면서 뛰어야 된다. 내가 섭리사 전체 교역자들이 어떻게 뛰는지 검토하며 교정에 들어갈 것이다. 6월까지 전도 실적을 보고하라고 너희 선생에게 이미 말했다.

교역자는 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교회를 이끌며, 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며, 본인부터 부지런히 뛰어야만이 성공적인 선교가 일어난다. 선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원만 채우는 것은 참 생명 구원이 아니다.

너희 선생은 칼같이 행한다. 하면 무섭게 한다. 십자가를 지고 끌려다니면서도 내 말씀을 빼먹고 지나간 일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행하는 것, 그것이 실천이다. 육신이 매여 패한 것 같아도 행할 것을 다 행하니 영육이 이긴 것이다. 그렇게 행함으로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네 선생은 육도 자유, 영도 자유다. 악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왜 그 영들이 사망권에 가 있겠느냐.

마치 태풍이 치듯 행해야 한다. 그래야 크든지 작든지 무엇인가 얻게 된다. 행하지 않는 자는 내게 신뢰를 잃은 자다. 행하여 내게 보여 줘야 다시 신뢰하게 된다. 말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죄는 더 크

고, 그런 자는 나와 더욱 멀어지게 된다. 개인, 교회, 나라들 중에 발전이 없는 곳은 나와 함께 행하지 않은 연고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보아라.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깊이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쉬었다가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해야 된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쉬지 말고 한 번에 해야 된다.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계시받는 자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더 깊은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계시받는 자들이 기도하다가 요즘은 계시를 전하는 데만 신경 쓰니 내가 깊은 것을 말해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조건을 세운 다른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게 된다.

사람이 정해 놓은 목적지를 갈 때 쉬었다가 가는 것과 연속해서 꾸준히 가는 것은 차이가 많다. 시간적인 차이가 나게 되고, 목적지에서 할 일도 착오가 생기게 된다.

물을 100도까지 끓여서 무엇을 삶아야 되는데 50도까지 끓이고 쉬었다가 물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70도까지 끓이고, 또 쉬었다가 물이 식으면 90도까지 끓이다 보면 결국 제시간에 100도까지 끓이지 못하고 말게 된다.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쉬면서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다.

경주하는 자가 한 번에 100m, 500m, 1500m를 뛰듯이 기도하는 자들도, 계시받는 자들도,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도 한 번에 끝까지 몰두하여 행해야 된다.

기도와 행함이다. 끝까지 하여라. 졸지 말고 헛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실천하여라. 기도하다가 한 번 벗어나면 그 기도는 실패다. 일하다가 그 일에서 벗어나면 그 일을 다시 하기도 힘들고, 자꾸 생각이 바뀌어 결국 행하지 않게 된다.

너희 중에 하루 일을 마치고 집 앞까지 가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피곤하다고 차 안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자다가 생명을 잃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나. 피곤해도 끝까지 집으로 들어가 방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같이 될 것을 알았다면 차 안에서 잤겠느냐.

한 번 실수하면 죽음과 바꾸게 되니 심각히 행해야 된다. 항상 ‘주와 함께’ 다. 내게 착 붙어서 나와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생명의 법을 벗어나 행하면 안 된다. 보는 자가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늘 계시해 주었는데도 생명과 같이 지키지 않고 그같이 하면 안 된다. 기도도 실천도 하다가 말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인간이 할 일을 내가 해 줄 수 없으니 나는 늘 말씀해 준다. 그러니 내 말을 생명시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영과 육은 다르다. 내 영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육을 가진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하는 영의 일을 너희가 해 줄 수 없듯이, 너희가 하는 육의 일은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못 해 준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철저히 행해야 된다.

행동하는 자는 나와 자주 만난다. 나와 대화를 목적하고 기도하는 자는 나와 잘 만난다. 때가 급하니 내가 반복하여 말하지 않도록 내 말을 한 번에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탄에게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울며 낙심하지 말고 즉시 행함으로 나와 같이 기뻐하며 승리자로서의 보람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행하지 않다가 늘 당하기만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네 자신을 책망하고, 밤잠을 재우지 말고 꼭 실천하게 하고, 밥을 먹이지 않고 실천한 후에 밥을 먹이기도 하며 너 자신을 제2의 나 예수로 삼고 코치하며 만들어라. 너를 훈련시키고 연습시켜라. 내게 고하면서 그렇게 행하여라.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10분, 혹은 20분, 혹은 1시간 동안 쉬었다가 설교하면 너희가 끝까지 듣겠느냐. 모두 다 집에 갈 것이다. 나도 그러하다. 기도할 때나, 실천할 때나 계속해야 될 일인데 힘들다고 쉬었다가 하고, 잡생각 넣어 가면서 하면 나는 계속 지켜 볼 수 없어서

떠난다. 그리고 계속하는 자에게 간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과, 나와 대화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했으니 알고 꼭 지켜 행하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꼭 지켜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을 기증하여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켜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안고 사랑하며 너와 함께 행하며 갈 것이다.

이미 1년 전에 행할 것을 지금도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 5년, 10년 전에 행할 일을 아직도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행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와 나와 동행하게 된다.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서 사망권에 있는 자다.

속히 행하여라. 내가 속히 온다. 행해야 내가 온다. 지금은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안 오는 정도지만, 그 날에는 내가 임하여 행한 자들과 행하지 않은 자들을 엄히 대한다. 지금 대하듯 대하지 않는다. 나와 내 아버지는 공의로 대한다. 행한 자는 내가 빨리 오기를 원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내가 더디 오기를 원할 것이다. 행해야 너도 마음을 놓고 살 것이 아니냐. 나도 너희가 행해 봐야만 마음이 놓여 그제야 기쁘다.

열 일 제치고 이유 없이 실천이다. 무섭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실천자만이 살아남는다. 너희 일은 너희 자신을 위한 일인 고로 누가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오늘 일은 오늘 꼭 해야 내일부터 방향이 달라진 상황에서 갈 길을 가게 되고, 내일 일은 내일 꼭 해야 모레부터 방향이 달라진 상황에서 갈 길을 가게 된다. 날짜를 정해 놓고 꼭 해야 된다.

사탄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 너희가 결심하고 행하면 두려워하고 막는다. 사탄은 막아도 6수다. 네가 갈 곳이 일곱 발자국 가야 할 곳이라면 여섯 발자국까지밖에 못 막는다. 그러므로 사탄도, 행악자들도, 뽀박자들도 끝까지 행하는 자를 막을 수 없다.

나이가 어려도, 힘이 약해도, 이제 온 신입생들도 행하자. 행한 자만

이 강한 자, 승리자가 된다. 이제 신앙을 시작했다고 어리다고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과감히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자만이 전진한다. 신입생들은 새 엔진을 가진 새 차와 같으니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에 불붙어서 달려야 된다.

오래된 자들은 몸이 너무 무겁고 실천이 느리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하게 되니 늘 나와 의논하여 행하여라. 그러면 칼로 하던 것을 도끼로 찍듯이 위력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저마다 자기 정신의 엔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고물이 되었는지 알 것이다. 정신은 새롭게 하고자 마음먹을수록 새 것이 되고 힘과 능력이 솟아난다. 뛰고 달리는 자들과 함께 달려라. 앉아서 누가 어떻다고 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다.

이제 온 신입생들 중에서도 앞에서 열심히 달리는 먼저 온 자들을 따라 부지런히 달리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을 보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달리면서 내게 수시로 묻지 않음으로 자기 주관대로 가다가 헛길로 가게 되니, 항상 내게 너희 중심을 맡기고 달려야 된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고로 다른 자를 세우게 된다.

행한 자들을 보아라. 그러나 행했어도 게을리 한 자들을 보아라. 너희 선생은 행함으로 몇 십 년 안에 세계까지 복음을 넣지 않았느냐. 각 나라 모두 자기 나라의 곳곳에 복음을 넣고 부지런히 관리해야 된다. 개인도 각 교회도 “이번 달에는 몇 명 전도하겠다. 올해는 몇 명 전도하겠다.” 정해 놓고 집중하여 전도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교역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서 최고로 행하면서 뛰어야만 내 마음에 드는 살아 있는 교역자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늘 달려야 된다.

청년부가 없고 청년부 인원이 적은 교회는 꼭 청년부를 전도하여 부흥시키고, 대학부가 없고 대학부 인원이 적은 교회는 대학부를 전도하여 부흥시키고, 중고등부가 없고 중고등부 인원이 적은 교회는 중고등부를 전도하여 부흥시켜야 한다. 전체가 균형을 이루며 온 교회 모든 자들이

일심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고 나가서 나와 전도하면 바로 된다.

교역자가 발령받은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별 발전이 없으면 어느 때까지 그냥 쳐다만 보겠느냐. 어서 행하여라.

교단도 인원만 늘리지 말고 어서 행하여라. 너희 선생이 있을 때 특별히 교단이 있었느냐. 이제 20여 명 그 인원만 해도 충분하다. 100명이 있어도 다 서성거리기만 하면 일이 되겠느냐. 기드온은 300명으로 한 나라를 대신하여 싸웠다. 인원이 많다고 이기느냐. 행하여라. 유능한 자만 세워 행해야 된다.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충실히 행해야 개인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말아라. 지도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여 신령하고 나와 하나 되어야 큰일을 한다.

늘 너희 선생이 말했듯이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우고 자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너희 선생은 이같이 준비된 자들을 찾고 있다. 유능한 자는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나의 일과 생명들을 맡긴다. 그동안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유능한 지도자가 되도록 충분히 배워야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세운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 앞에서 이끌고 나갈 정도가 되어야 따르는 자들을 잘 지도하여 그들과 함께 부흥시킬 수 있다. 지도자는 명령만 해서도 안 되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만 해서도 안 되고, 먼저 본을 보여 주고 희생하면서 앞에서 행해야 된다. 책망이나 하고, 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노력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

서로 모두 하나 되어 해야 된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 함께하니 모두 단합하고 화목해야만 각 개성체들이 모여 개성대로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짧은 기간에도 표적의 생명의 역

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여 방해한다.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뉘면 배나 약해진다.

사탄은 독제로 하고 명령으로 하기에 하나 되어서 철저한 조직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통해 너희를 방해한다. 너희는 순리로 하나 되고, 화목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행하라.

성령 집회, 말씀 집회는 나 예수가 직접 행하니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라. 때가 지나면 마치 겨울철에 월명동에 꽃을 보러 오는 것과 같아서 천 리를 돌아다녀도 그 역사를 볼 수 없다. 나의 때에 내가 충만히 줄 때 준비하고 받아라.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톱니바퀴같이 돌아가는 섭리역사에서 자기 책임 하면서 그때그때 행하는 것이다. 제때 못 한 자는 신앙이 죽어서 자동적으로 잘하는 자를 악평하면서 나가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 나의 마음을 받은 자, 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모두 행하여라. 나의 사랑은 100%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받게 된다. 사랑은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쉽게 알아듣도록 말하였으니 잘 이해하고 결심하고 행하기를 축복한다. 행하는 자에게는 신부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충만히 줄 것이다. 기도와 실천은 승리하게 한다.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하여 기도와 실천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빈다.

너희가 행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주니라.

<축 도>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진정 행하는 절대자들이 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